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 분석

- Jung의 심리유형론과 Lee의 사랑유형론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Tendency and Relationship of Love Style among Single Men and Women in Korea

- Focused on Jung's Theory of Psychological Type and Lee's Typology of Love -

상명대 대학원
석사 이정은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최연실

Graduate School, Sangmyung University

Master : Lee, Jung Eun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 Choi, Youn Shil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변수정의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Abstract>

This research tried to examine how the love style is changed as the psychological tendency specifying individual personality types that othe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have overlooked all this whil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college students and white and blue-collar employees.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Love Attitude Scale and the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When applying the MBTI and the Love Attitude Scale, 474 people were analyzed. To get the result, the data from the survey were processed by the statistical program, SPSS/PC⁺. Specifically, the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and chi-squ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 love style among single men and women in this study was the Eros (46.6%). The

next frequent love style was the Storge (40.3%). The Ludus occupied the least portion (13.1%) among single men and women.

2. The personality types over 10% among 16 personality types of MBTI were ISTJ (Introverted Sensing Type) (19.4%), ESTJ (Extraverted Sensing Type) (13.1%), and ISTP (Introverted Thinking Type) (12.4%).
3.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relationship of the love style and the psychological tendency among single men and women, the love style was found to have relationship with TF preference (Judgement Function) and JP preference (Life Style). However, there were no relationships with the love style and EI preference (Focus of Energy), SN preference (Perception Function).

주제어(Key Words): 심리경향(psychological tendency), 사랑의 유형(love style), 미혼남녀(single men and women)

I. 문제의 제기

최근 들어 사랑이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말미암아 국내외적으로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연구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김중술, 1998; 함인희, 1998; Giddens, 1992; Sternberg & Barnes, 1988).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기 위해서는 연인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청년기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성인전기의 발달과정과 사랑과의 관계를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조복희·정옥분·유가호, 1989: 22). 이 시기는 아동기가 끝나는 사춘기 이후(18세에서 22세)로부터 어른이 되기 직전의 성인기 전기(22세부터 34세)까지가 해당되는데, 주로 사랑을 시작하여 그 결실인 결혼에 도달하게 되는 연령대이다.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친밀감 형성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김중술, 1998: 77). 실제로 이 시기의 미혼남녀들은 여러 유형의 인간관계 가운데 연인관계(romantic relationship)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꼽는 경향이 있다(Berscheid, Snyder & Omoto, 1989).

사랑에 대한 연구들은 연인관계나 사랑의 속성은 어떤 것이며, 그 과정, 유형, 특성은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된다. 사랑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사랑은 감정의 반영만이 아니고 인지, 행동의 요소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 감정, 행동을 표현한다고 한다(Hatfield & Sprecher, 1986).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반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자인 Lee(1973)도 역시 사랑의 서로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사랑의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사랑의 유형이 항상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일관된 사랑의 유형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적·상황적·관계 특징적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사랑의 유형이 성격적인 것인지 아니면 태도의 문제인지는 아직 어떠한 결론에 도달되지 못하고 있으나(Hendrick & Hendrick, 1986), 만약 매우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성격 측정 도구를 써서 사랑의 유형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양한 사랑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러한 사랑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ubin, 1970).

사랑에 대한 초기 이론들은 사랑을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던 반면에 최근의 이론들은 사랑을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추세이다(Dion & Dion, 1973; Hazan & Shaver, 1987; Kelley, 1983; Lee, 1973; Sternberg, 1986; Walster & Walster,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와 같은 입장에서 사랑을 다차원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친밀한 관계방식으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되는 사랑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특성은 친밀한 애정관계의 발달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Blau, 1964). 흔히 인성특성, 그 중에서도 성격유형은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성격유형은 반응경향성(response set)을 형성하는데, 이는 연인, 배우자, 가족, 고용인, 동료 등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Hirsh & Kummerow, 심혜숙·임승환 역, 1997: 11). 성격의 개인차는 정서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에서의 개인차로 표현되며(김동기 외, 1997: 251),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양식에도 작용한다.

한편, 성격을 보는 관점은 크게 특성론과 유형론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 Jung은 유형론의 관점을 취하였다. 그는 심리경향의 역동에 따라 개인의 적응양식이나 환경대처양식, 인간관계를 맺는 양상, 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김정택·심혜숙, 1993). 이러한 Jung의 이론을 바탕으로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 Myers가 오랜 세월 연구 개발한 성격유형 선호지표(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다(김정택·심혜숙, 1990a).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 보면, 각자 매우 다르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차이는 바로 인성의 차이 즉, 심리학적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랑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경험되는 현상을 성격특성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Jung의 심리유형론과 Lee의 사랑유형론에 근거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랑의 유형을 밝혀, 개인의 성격특성이 사랑의 양상과 내용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혼남녀의 사랑

의 유형 특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사랑에 관한 Lee의 유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심리경향의 전반적인 분포에 대해 살펴본 후, 각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인성특성이 남녀간의 친밀성과 관계되는 사랑유형의 선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규명될 것이다. 또한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결혼 전 준비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랑의 유형

1970년대 이후로 사랑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초로 사랑의 양식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Lee(1973)이다. 그는 사랑을 색깔로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사랑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에서 사랑의 유형에는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호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Lee(1974)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사랑과 관계된 4000여 개의 용어를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사랑을 정의하고 있다. Lee는 사랑의 유형을 1차 유형(primary style)과 2차 유형(secondary style)으로 구분하였다. 1차 유형에는 Eros(열정적, 낭만적 사랑), Ludus(유희적 사랑)와 Storge(친구같은 사랑, 우애적 사랑)가 있으며, 1차 유형이 조합되어서 나타난 2차 유형에는 Mania(소유적, 의존적 사랑), Pragma(논리적, 실용적 사랑) 그리고 Agape(이타적, 헌신적 사랑)가 있다. 아가페는 에로스와 스토르게가 결합되어서, 매니아는 에로스와 루두스가 조합되어서 나타난 것이며, 프래그마는 루두스와 스토르게가 결합한 사랑의 유형이다. Lee가 말한 사랑의 1차 유형과 2차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에로스(Eros: 열정적, 낭만적 사랑)

강한 정서적 감정이 특징이며, 첫 눈에 반한다든지 연인의 신체적인 매력에 끌림으로 처음에 사랑이 시작된다.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연인들은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서로가 빨리 자기 개방을 하여 감정적인 동화도 쉽게 한다. 또 이들은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이 행복했었다고 생각하며, 말이나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2) 루두스(Ludus: 유희적 사랑)

이 유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에 빠지거나 헌신할 의사가 없는 정서가 자제된 사랑을 보여준다. 이들은 쉽게 애인을 바꿀 수 있고, 상대에 대해서도 매우 허용적이며, 한 대상에만 몰입하지 않으므로 여러 대상을 동시에 사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란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이 그저 평범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종종 좌절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3) 스토르케(Storge: 친구같은 사랑, 우애적 사랑)

사랑을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특별한 종류의 우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사랑방식이다. 이들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에 대해 얘기하기를 더 좋아하며, 열정보다는 친구로서 알아 가는 과정을 보다 소중히 여기므로 서서히 발전해 가는 정(情)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사랑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친구 같은 사랑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보통 어린 시절 식구가 많고 격려해주는 가족 안에서 자랐거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4) 매니아(Mania: 소유적 사랑)

소유적인 사랑은 질투와 소유욕이 강하고 애인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있고 애인에게 의존적이다. 사랑의 기쁨에서 슬픔으로 변하는 감정의 기복이 심

하고 항상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받기를 원한다. 소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극도의 질투심을 보이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한다. 소유적인 사랑의 내재적인 상반성은 두 개의 기본적인 사랑 즉, 열정적인 사랑과 유희적인 사랑의 특이한 결합으로 인해 나타난다.

5) 프래그마(Pragma: 실용적, 논리적 사랑)

프래그마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소포리스트 같은 사랑유형이다. 즉 상대가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상대를 찾는다. 실용적인 사랑의 유형은 유희적인 사랑과 친구 같은 사랑이 결합한 유형이다. 논리적인 사람은 자기와 어울리는 배경과 관심사를 지닌 사람을 찾기 위해 유희적 사랑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찾는데, 친구 같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열정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의식적으로 가려 뽑고, 친구나 부모와 함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상의하기도 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한다.

6) 아가페(Agape: 이타적, 헌신적 사랑)

열정적인 사랑과 친구 같은 사랑이 결합한 유형인 아가페는 헌신적·타인 중심적·자기상실적 사랑 유형으로 사랑을 선물 혹은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상호성을 기대하지 않으며 사랑을 의무로 여긴다. Lee(1973)는 이렇게 의무적이며 베푸는 사랑 유형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완전히 헌신적인 사랑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일시적으로 헌신적일 수 있거나,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2. 심리경향

Jung은 인간관계의 경험과 성격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사람마다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관점과 이를 통한 판단의 양식이 차이가 있음을 주장

하였다. 심리학적 유형론은 의식의 구조, 각 기능의 유형 및 무의식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심리적 경향이 지니는 구조간의 동적인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그 관계를 심리유형 안에서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 그리고 정신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이부영, 1993). 본 연구에서는 Jung이 분류한 태도와 기능의 심리유형과 그 조합을 통틀어 심리경향이라고 한다.

Jung은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는 그 사람의 내부에서나 바깥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내향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외향성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외부환경을 대하는 방법에도 각기 개인차가 있으며, 이는 바로 독특한 마음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Jung은 이러한 기능의 선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며, 이러한 근본적인 선호성이 각기 다른 심리경향을 지닌 인간의 개인차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이러한 선호성은 어떤 민족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믿었다(Jung, 1971, 김정택·심혜숙, 1993에서 재인용). Jung이 말한 심리적 선호경향과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유형론에서 외향성(E: Extraversion), 내향성(I: Introversion)은 정신에너지의 방향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하는가와 관련된다. 내향형과 외향형은 둘 다 중요하며, 상호보완적이다. 외향적 태도가 일방적으로 작용하면 객체에 순응한 나머지 주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내향형이 지나치게 일방적이 되면 주관주의적 자기중심적 경향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 Jung은 정신 에너지의 방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인간은 외향 혹은 내향이라는 양극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어진다고 보았다(김정택·심혜숙, 1993에서 재인용).

성격유형론에서 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정신기능이다. Jung은 인간의 정신기능을 인식기능인 감각과 직관, 판단기능인 사고와 감정기능으로 분류하고 인식기능인 감각과 직관기능을 비합리적 기능, 그리고 판단기능인 사고와 감정기능을 합리적

인 정신기능으로 보았다. 인식기능은 옳고 그름의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무엇을 감지하는 기능이므로 비합리적 기능으로 보았으며, 판단기능은 주어진 관념내용을 서로 연결시키는 기능으로 규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합리적인 기능으로 여겼다. 합리적 기능인 사고와 감정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판단을 내리는 기능이며, 서로 대극을 이루어 상호 대립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각과 직관은 이와 같은 이성적 고려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인식이며 판단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비합리적 기능에 속하며, 감각과 직관도 역시 대극을 이룬다.

인간이 외부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에도 각기 개인차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독특한 심리경향에서 연유한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나 직관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인식형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사고나 감정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판단형이 되는데, 이러한 선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고 보여진다(김정택·심혜숙, 1993).

MBTI(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하여 Katharine Briggs와 Isabel Myers의 인간이해에 대한 노력으로 연구개발 되었다. 이들은 Jung에 의한 개인의 타고난 성격유형을 MBTI를 통해 찾을 수 있게 하며, Jung 자신이 심리유형론에서 간단히 언급한 JP척도의 기능을 더 확장해서 주기능, 보조기능을 이해하고 성격유형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 태도와 정신의 네 기능 외에 판단(J: Judging)과 인식(P: Perceiving) 기능 차원을 추가하였다(김정택·심혜숙, 1993).

1) MBTI의 4가지 선호경향(Preferences)과 16가지 성격유형

MBTI는 다음의 4가지 척도를 통해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정보수집양식)와 인식한 것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판단양식)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의 인식과 판

단을 사용하는 방향의 기본적 선호를 반영한다. MBTI에서의 선호경향이란 개인이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타고난 경향성을 말한다. 네 가지 척도는 <표 1>과 같다(김정택·심혜숙, 1993).

외향형(E)은 외부세계에 주로 관심이 향함으로, 외부의 사람과 사물에 인식과 판단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내향형(I)은 주로 내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내면 세계의 개념과 아이디어에 자신의 인식과 판단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반추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감각형(S)은 오감(보고 듣고 맛보고 등)을 통해 관찰가능한 사실들과 사건을 정보로 수집한다. 이들은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중시하며 실제적이며 관찰능력이 뛰어나고 구체적 사실들을 잘 기억한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실적 묘사에 뛰어나다. 이들의 인식은 예민한 사진 필름과 같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중요시한다.

직관형(N)은 오감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육감에 의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들은 사물을 있

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을 보거나 의식 너머에서 작용하는 가능성을 추구한다. 상상적인 것, 은유, 상징, 추상적인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이며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며 단조로운 일에 쉽게 지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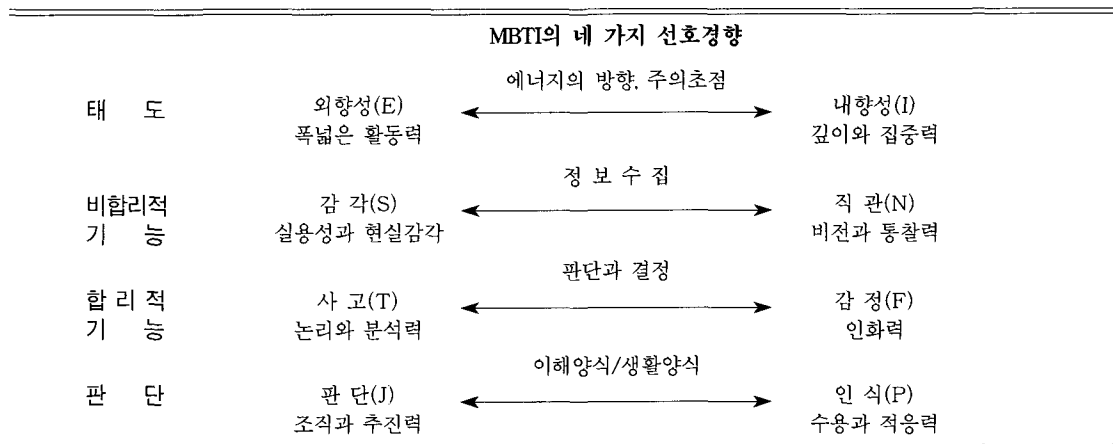
사고형(T)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비교 분석하며 판단을 한다. 이들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정의, 원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이들의 아이디어 평가기준은 논리적인가 비논리적인가 또는 일관성이 있는가 비일관적인가이다.

감정형(F)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주관적이고 자신과 타인에게 주어지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석이나 논평보다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조화를 선호한다. 이들의 아이디어 평가기준은 논리보다는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불만족한가에 달려있다.

판단형(J)은 외부세계에 적응할 때 판단기능(사고나 감정)을 사용하기를 더 선호한다. 이들은 의사를 결정하고 결론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안정되고 확고한 태도를 보이며, 외부세계에 구조와 질서 있는 생활양식으로 적응한다.

인식형(P)은 외부세계를 살아갈 때 판단기능보다 정보수집, 인식의 기능(감각과 직관)을 더 선호하여

<표 1>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



일을 결정하고 생활을 구조화하기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들은 개방적으로 보이고 호기심 많고 관찰해 가는 과정을 즐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를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자율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네 척도의 양극 중에서 개인은 더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편안해 하는 한쪽 극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유형으로 표현된다. 각 척도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네 척도를 서로 조합하면 16가지 성격유형이 형성되며 4개의 글자로 표현된다. 조합된 16가지 성격유형은 <표 2>와 같다.

유형론은 이 16개 성격유형 각각이 동등한 가치가 있으며, 각 유형은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과 장점이 있고, 각자 취약한 영역, 주의하고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김정택·심혜숙, 1990a).

2) 기질과 기능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 중 둘이 합쳐서 마음의 기질유형과 기능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기질과 기능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징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기질은 SJ, SP, NF, NT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SJ유형은 조직적이고 신뢰할만하고 보수적인 경향을 띠며 환경에서 질서정연한 것을 추구한다. 이 유형은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모호한 것은 싫어한다. SP유형은 현 순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자기주위세계에 대한 호기

심이 많다. 이 유형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잘 순응해 나갈 줄 알며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 잘 관찰한다. NF유형은 전형적으로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으며,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실 이면에 깔려있는 양식, 상징적 의미, 이론적 관계 등에 관심이 많다. 또한 감정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관적 통찰을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이 유형은 따뜻한 온정과 헌신으로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정열적이다. NT유형은 가능성, 이론적 관계, 추상적인 양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려 한다. 이 유형이 추구하는 가능성은 인간적인 요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술적, 과학적, 이론적, 관리직 분야에서의 가능성이다.

한편, 기능은 ST, SF, NF, NT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 유형 중에서 ST와 SF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ST유형은 인식할 때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는 주로 사고를 사용한다. 수집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왜냐하면 이 유형들이 신뢰하는 것은 사고로서, 원인에서 결과, 가정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 논리적 추리과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SF유형은 ST형과 마찬가지로 인식할 때 주로 감각을 사용한다. 그러나 판단할 때에는 감정을 선호한다. 이 유형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표 2>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ST	SF	NF	NT
IJ	ISTJ 내향성 감각형	ISFJ 내향성 감각형	INFJ 내향성 직관형	INTJ 내향성 직관형
IP	ISTP 내향성 사고형	ISFP 내향성 감정형	INFP 내향성 감정형	INTP 내향성 사고형
EP	ESTP 외향성 감각형	ESFP 외향성 감각형	ENFP 외향성 직관형	ENTP 외향성 직관형
EJ	ESTJ 외향성 사고형	ESFJ 외향성 감정형	ENFJ 외향성 감정형	ENTJ 외향성 사고형

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온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 유형은 사물에 대한 사실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각과 감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동정적이고 우호적이다(김정택·심혜숙·임승환, 1993).

3. 사랑의 유형과 심리경향

사랑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랑의 유형과 심리경향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연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심리학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효택, 1994)가 이루어졌는데, 연구결과로는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은 가장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 회피유형의 사람보다 고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였고, 여자는 남자보다 친구 같은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정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성격유형과 성역할 특성에 따른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윤미영, 1994)에서, 여대생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로 선택하는 성격유형은 사회의 규범을 반영한 책임감이 강하고 능력 있는 합리적인 특성의 ESTJ유형(47%)이며, 특히 S-N과 SI에서는 유사한 유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85.3%의 여대생들은 I보다는 E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E-I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유사성보다 남자다운 기대치가 더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를 밝힌 성격과 사랑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조은혜, 1996)는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사랑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대학생 표본에서 이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한 뒤, Lee(1973)의 여섯 가지 사랑유형에 관한 이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섯 가지 사랑유

형은 우리 나라 대학생 표본에서도 똑같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랑유형과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순응성, 통제성의 다섯 성격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된 사회인구학적 변인도 이러한 사랑유형간의 차이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살펴보면, 사랑은 분명히 개인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 문화적 구성물이기도 하며, 의미 있게 성장하는 삶의 모색과 관련해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실천적 가치이기도 하다(김활란, 1995).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사랑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커져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이 갖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시도되는 사랑에 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 내면의 정서이자 사회 심리적 현상이기도 한 사랑의 실체와 본질에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이론들을 정립해 간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사랑에 관한 연구는 더 나아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III.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랑의 유형을 밝혀, 개인의 심리경향과 사랑의 양상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 이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존의 사랑에 관한 Lee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미혼남녀의 사랑유형의 하위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남녀의 사랑유형의 전반적인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의 전반적인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미혼남녀의 각 심리경향에 따라 사랑의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4-1. 미혼남녀의 외향-내향에 따라 사랑의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4-2. 미혼남녀의 감각-직관에 따라 사랑의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4-3. 미혼남녀의 사고-감정에 따라 사랑의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4-4. 미혼남녀의 판단-인식에 따라 사랑의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4-5. 미혼남녀의 기질에 따라 사랑의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4-6. 미혼남녀의 기능에 따라 사랑의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미혼남녀이다. 조사대상자인 미혼남녀 474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4.5%, 여자가 55.5%이며, 대학생이 49.2%, 직장인이 50.8%이다. 그리고 응답자 중 25세 이하가 69.4%, 26세~29세가 22.8%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0대이다. 조사대상자의 이성교제경험 횟수를 보면 '이성교제경험이 없음'이 15%, '1번~2번'이 57.8%, '3번 이상'이 25.7%, 무응답이 1.5%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의 이성교제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성교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42.2%이며,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이 56.7%, 무응답이 1.1%로 응답자들 중에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심리유형검사(94문항), 사랑유형검사(42문항), 사회인구학적 특성(11문항)으로 총 1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심리경향

Jung의 성격유형론에 근거하여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심리유형검사(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김정택과 심혜숙(1990b)이 표준화한 한국판 MBTI 심리유형검사를 사용하였다.

2) 사랑의 유형

사랑의 유형 척도는 Hendrick과 Hendrick(1986)이 Lee(1973)의 검사를 기반으로 개발한 '사랑의 태도 척도(Love Attitude Scale)'를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여섯 개의 사랑유형을 각각 7문항으로 측정하며, '(1) 전혀 아님'에서 '(5) 매우 그렇다'의 5단계로 각 문항을 평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랑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각각의 사랑유형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예로는 '내 애인과 나는 첫 눈에 서로 끌렸다'는 열정적 사랑(낭만적 사랑)을, '나는 연애를 쉽게 하고 빨리 그만두는 편이다'는 유희적 사랑을, '나는 애인과 언제나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는 우애적 사랑을, '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실용적 사랑을, '사랑에 빠지면 나는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소유적 사랑을, '애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헌신적 사랑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랑의 유형 척도의 구체적인 신뢰도는 척도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는 Cronbach의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에로스는 .86, 스토르게는 .75, 루두스는 .66으로 각 척도들은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질문지 조사척도를 작성한 뒤 박사과정 이상의 가족학 전공자

3명에게서 질문지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3.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조사에 앞서 1999년 8월 6일부터 13일까지 미혼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하고, 일부 부적절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미혼남녀로서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대학생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S대학교, S대학교,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I대학교의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직장인들은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211명(44.5%), 여자가 263명(55.5%)이었으며, 대학생이 233명(49.2%), 직장인이 241명(50.8%)이었다.

질문지의 명확성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응답자에게 질문지를 배포·수거하였고, 총 550부의 질문지 중 511부가 회수되었으나, 두 검사 중 한 검사에만 참여하였거나 두 검사에 참여하였으나 인적사항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총 47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미혼남녀들의 사랑의 태도 척도와 심리유형검사(MBTI)를 실시하여 얻은 사랑의 유형과 심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사랑의 유형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후, 마지막으로 사랑의 유형과 심리경향의 결과에 대해 χ^2 검증을 통하여 심리경향에 따라 사랑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미혼남녀의 사랑의 유형 하위요인 분석

사랑의 유형에 관한 42개의 문항에 대하여 주요인 분석과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의 유형 42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3이하로 낮은 5개의 문항(2번, 8번, 9번, 16번, 35번 문항)을 제외하고 37개의 문항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로스(요인 1, 20문항), 스토르계(요인 2, 12문항), 루두스(요인 3, 5문항)의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6.8%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르계 사랑의 문항인 34번 문항은 요인 2와 요인 3에 .40으로 동시에 포함되었으나 받아들이는 의미에 따라 스토르계의 사랑유형에 더 가까운 의미이므로 요인 2에 포함시켰다. 그 내용은 “애인을 사귄 때에는 그/그녀가 나의 경력에 도움을 줄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였다.

요인 1의 문항내용은 Hendrick과 Hendrick(1986) 척도에서 열정적인 사랑의 문항과 소유적인 사랑의 문항,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의 문항으로 묶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에로스”로 명하였다. 이는 Lee의 사랑의 유형에서 이차색인 매니아(소유적 사랑)와 아가페(헌신적 사랑), 그리고 일차색인 에로스(열정적 사랑)의 형태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요인 2는 친구같은 사랑과 실용적인 사랑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스토르계”로 명하였고, 요인 3은 유희적인 사랑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루두스”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미혼남녀의 사랑유형은 에로스, 스토르계, 루두스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Lee의 사랑유형에서 1차 유형(일차색)으로 분류된 에로스, 스토르계, 루두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혼남녀의 사랑의 유형 분포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미혼남녀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유

〈표 3〉 사랑유형 척도의 요인 부하량*

문항	요인 1(에로스)	요인 2(스토르게)	요인 3(루두스)
42	.69	0	-.24
12	.63	0	-.26
18	.62	0	-.10
30	.61	0	0
36	.60	0	-.13
24	.56	0	-.15
6	.52	0	-.27
17	.51	.21	.25
19	.50	.13	0
13	.49	.14	0
23	.48	.13	.35
7	.47	0	.27
41	.46	0	.17
29	.43	0	.25
31	.38	.27	-.17
37	.38	0	.18
1	.37	0	.15
11	.37	0	.22
5	.34	.12	.15
32	.34	.19	.23
21	-.11	.69	-.24
39	-.11	.61	-.45
33	-.17	.56	-.22
27	0	.52	-.42
22	-.17	.43	.34
3	0	.40	-.29
40	0	.40	.20
34	-.20	.40	.40
4	-.17	.36	.28
10	-.20	.35	.13
28	0	.35	0
15	0	.32	-.20
25	.38	-.13	.43
38	-.10	.17	.39
20	-.20	.17	.38
14	0	.23	.37
26	0	0	.36
아이겐값	6.17	3.77	3.35
설명변량	13.10%	7.39%	6.35%
누가변량	13.10%	20.49%	26.84%

*: 사랑의 유형 척도 문항 중 2번, 8번, 9번, 16번, 35번 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3 이하로 제외되었다.

〈표 4〉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분포

사랑유형	빈도(N)	비율(%)
에로스	221	46.6
스토르게	191	40.3
루두스	62	13.1
전체	474	100.0

형 분포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미혼남녀의 사랑의 유형 분포는 에로스(46.6%)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스토르게(40.3%), 루두스(13.1%) 순의 비율로 나타났다.

에로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미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랑에 관한 열정과 헌신의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반면, 루두스 사랑의 유형이 가장 낮은 비율의 결과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루두스의 사랑을 묻는 문항의 질문들이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거부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미혼남녀의 심리경향 분포

MBTI 검사를 통한 미혼남녀 전체 분석 대상자 474명의 심리경향 분포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첫 번째 항목은 8가지 심리유형(E-I, S-N, T-F, J-P)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기질(SJ, SP, NF, NT)을, 세 번째 항목은 기능(ST, SF, NF, NT)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미혼남녀의 심리경향 분포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척도에서 I, S, T, J가 절반이상의 분포를 이루고 있고, 선호쌍의 분포에서는 기질별로 SJ와 SP가, 기능별로는 ST와 SF가 50% 이상의 분포를 이루었다. 이는 대학생의 성격유형규준(심혜숙, 김정택, 1990b)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대상자들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미혼남녀의 심리경향 분포

N=474

심리경향	빈도(N)	비율(%)	심리경향	빈도(N)	비율(%)
외향(E)	191	40.3	내향(I)	283	59.7
감각(S)	372	78.5	직관(N)	102	21.5
사고(T)	301	63.5	감정(F)	173	36.5
판단(J)	251	53.0	인식(P)	223	47.0
SJ	215	45.4	SP	157	33.1
NF	50	10.5	NT	52	11.0
ST	249	52.5	SF	123	25.9
NF	50	10.5	NT	52	11.0

4.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심리경향 즉,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그리고 기질, 기능에 따라 사랑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χ^2 검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외향-내향의 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표 6〉에서와 같이 외향형과 내향형 모두 에로스 > 스토르계 > 루두스의 순으로 사랑의 유형이 나타났다. 에로스와 스토르계 사랑의 유형은 외향형보다 내향형의 사람들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러한 지표는 사랑의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외향-내향의 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사랑유형	심리경향	외향(E)	내향(I)	전체
에로스		92	129	221
		(19.4)	(27.2)	(46.6)
스토르계		68	123	191
		(14.3)	(25.9)	(40.3)
루두스		31	31	62
		(6.5)	(6.5)	(13.1)
전체		191	283	474
		(40.3)	(59.7)	(100.0)
χ^2		4.34 df=2		

2) 감각-직관의 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감각과 직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에 대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각형과 직관형 모두에서 에로스 > 스토르계 > 루두스의 순으로 사랑유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에로스, 스토르계, 루두스의 모든 유형에서 직관형보다 감각형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러한 지표는 사랑의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고-감정의 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사고와 감정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에 대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χ^2 은 26.36이고 자유도는 2로 $p < .001$ 수

〈표 7〉 감각-직관의 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사랑유형	심리경향	감각(S)	직관(N)	전체
에로스		167	54	221
		(35.2)	(11.4)	(46.6)
스토르계		154	37	191
		(32.5)	(7.8)	(40.3)
루두스		51	11	62
		(10.8)	(2.3)	(13.1)
전체		372	102	474
		(78.5)	(21.5)	(100.0)
χ^2		2.16 df=2		

〈표 8〉 사고-감정의 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사랑유형	심리경향	사고(T)	감정(F)	전 체
에로스		115 (24.3)	106 (22.4)	221 (46.6)
스토르케		146 (30.8)	45 (9.5)	191 (40.3)
루두스		40 (8.4)	22 (4.6)	62 (13.1)
전 체		301 (63.5)	173 (36.5)	474 (100.0)
χ^2		26.36**		df=2

** p < .001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고형에서는 스토르케 > 에로스 > 루두스의 순으로 사랑의 유형이 나타났고, 감정형에서는 에로스 > 스토르케 > 루두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고형에서 스토르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합리적 판단과정 중 사고형의 경우 상대방 또는 인정, 체면보다는 논리적 분석 또는 원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러한 논리적 판단이 사랑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성향은 스토르케의 친구같은 사랑의 모습, 즉 사랑을 특별한 종류의 우정이라고 여겨서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함께 즐기는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감정형에서 에로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감정형의 사람들인 경우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 희생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랑 역시 감정적인 판단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에로스의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과 관계가 깊은 결과라고 보여진다.

4) 판단-인식의 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판단과 인식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에 대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χ^2 은 13.13이고 자유도는 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판단형에서는 스토르케 > 에로스 > 루두스의 순으로 사랑의 유형이 나타났고, 인식형에서는 에로스 > 스토르케 > 루두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판단-인식의 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사랑유형	심리경향	판단(J)	인식(P)	전 체
에로스		110 (23.2)	111 (23.4)	221 (46.6)
스토르케		118 (24.9)	73 (15.4)	191 (40.3)
루두스		23 (4.9)	39 (8.2)	62 (13.1)
전 체		251 (53.0)	223 (47.0)	474 (100.0)
χ^2		13.13**		(df=2)

** p < .001

스 > 루두스의 순으로 사랑의 유형이 나타났고, 인식형에서는 에로스 > 스토르케 > 루두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식형에서 에로스 사랑의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인식형의 사람들은 상황에 맞추는 생활양식을 선호하여 삶의 흐름에 순응해 나가며 더 풍류적이고 개방지향적인 형으로 이러한 성향이 에로스의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 즉 사랑을 갈망, 추구하는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루두스 사랑의 유형이 판단형에서보다 인식형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인식형인 사람들은 늘 새로운 가능성에 개방되어있고, 변화를 추구하므로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에 루두스의 유희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5) 기질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기질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에 대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χ^2 은 19.80, 자유도는 6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와 같이 SJ 유형에서는 스토르케 > 에로스 > 루두스의 순으로 사랑의 유형이 나타났고, NT유형에서는 스토르케와 에로스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루두스가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SP유형과 NF유형에서는 에로스 > 스토르케 > 루두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SJ유형은 현실적인 의사결정형으로 조직적이고

〈표 10〉 기질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사랑유형 \ 심리경향	SJ	SP	NF	NT	전 체
에로스	95 (20.0)	72 (15.2)	31 (6.5)	23 (4.9)	221 (46.6)
스토르계	101 (21.3)	53 (11.2)	13 (2.7)	24 (5.1)	191 (40.3)
루두스	19 (4.0)	32 (6.8)	6 (1.3)	5 (1.1)	62 (13.1)
전 체	215 (45.4)	157 (33.1)	50 (10.5)	52 (11.0)	474 (100.0)
χ^2	19.80*				(df=6)

* p < .01

신뢰할 만하며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모호한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NT유형은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 능력을 중요시하고 여러 분야에 많은 관심사가 있으므로 지식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지면서 완벽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SJ형과 NT형의 여러 분야에 관한 관심사와 흥미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인 친구로서의 사랑 즉, 스토르계의 성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SP기질과 NF기질의 사람들에게서는 에로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SP유형이 순응적인 현실주의형으로서 이들은 상황이나 외부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편견 없이 순응해 나가는 형으로 이러한 경향이 에로스 사랑의 유형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NF유형은 열정적, 통찰적 유형으로 판단할 때 감정을 사용하여 따뜻한 온정과 헌신으로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정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향이 에로스 사랑의 유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루두스 사랑의 유형에서 SP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상황이나 외부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편견 없이 순응해 나가는 순응적인 현실주의형인 SP형의 사랑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기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기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에 대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χ^2 은 27.62이고 자유도는 6이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형에서는 사랑의 유형이 스토르계 > 에로스 > 루두스의 순으로 나타났고, NT형에서는 스토르계와 에로스가 비슷한 비율로, 반면 루두스가 낮은 비율을 보였다. SF형과 NF형에서는 에로스 > 스토르계 > 루두스의 순으로 사랑의 유형이 나타났다. 즉, ST형과 NT형에서는 스토르계가 가장 높았고, SF형과 NF형에서는 에로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유형은 실질적, 사실적 유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인정에 얽매이기보다는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유형으로서 스토르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한편, NT유형은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NT유형의 특성상 스토르계가 많이 나타나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로스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서 SF유형은 동정적, 우호적 유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적 온정을 바탕으로 하며 인간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유형이며, NF유형은 열정적,

〈표 11〉 기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검증

사랑유형 \ 심리경향	SJ	SP	NF	NT	전 체
에로스	92 (19.4)	75 (15.8)	31 (6.5)	23 (4.9)	221 (46.6)
스토르게	122 (25.7)	32 (6.8)	13 (2.7)	24 (5.1)	191 (40.3)
루두스	35 (7.4)	16 (3.4)	6 (1.3)	5 (1.1)	62 (13.1)
전 체	249 (52.5)	123 (25.9)	50 (10.5)	52 (11.0)	474 (100.0)
χ^2	27.62**				(df=6)

** p < .001

통찰적인 유형으로 SF형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때 감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한 온정의 소유자로서 인간에 대한 열정과 이상향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유형의 유사점에서 에로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VI. 결론 및 논의

사랑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며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랑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국내외 연구들이 간과해왔던 개인의 성격유형을 특징 짓는 심리적 경향에 따라 사랑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사랑에 관한 Lee의 유형이 본 연구에서도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요인분석한 결과, Lee의 1차 유형인 세 가지 사랑의 유형(에로스: 열정적인 사랑, 스토르게: 친구같은 사랑, 루두스: 유희적인 사랑)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미혼남녀들의 사랑유형은 에로스, 스토르게, 루두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미혼남녀에게서 나타난 사랑의 유형 분포는

에로스, 스토르게, 루두스의 순서이다. 여기서 에로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미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랑에 관한 열정을 나타내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같은 맥락에서 루두스 사랑의 유형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이 사랑의 유형이 지니고 있는 유희적 측면이 이들 미혼남녀에게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게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미혼남녀의 사랑의 유형은 심리경향 중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심리경향의 기질과 기능에 따라서도 사랑의 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을 제외한 각각의 심리경향이 사랑의 유형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즉 성격특성에 따라 사랑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주위의 방향, 에너지의 초점과 관계되는 외향-내향의 심리경향 차원은 사랑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향과 내향은 태도와 관련되는 심리경향 차원으로 이 태도차원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개인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생애 초기에 이미 결정되어지는 심리경향이다(김정택·심혜숙, 1993: 19). 따라서 사랑의 유형은 선천적으로 특정한 성향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섯째, 인식기능과 관계되는 감각-직관의 심리경향 차원은 사랑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이는 인식기능은 옳고 그름의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무엇을 감지하는 비합리적 기능으로 이성적 고려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사랑의 유형에는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심리경향은 미혼남녀가 이성교제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에 관련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방법에 있어서 유의적인 표집을 하였으므로, 표집대상이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중류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확대하고,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을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뿐만 아니라, 기혼남녀까지 고려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랑의 태도 척도는 외국의 문헌을 그대로 번역 또는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척도가 우리 나라의 사랑의 유형을 재는 데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척도의 속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항목을 첨가하거나 더 정밀한 분류를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사랑의 개념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경향과 사랑의 유형을 관련지은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방법론을 달리한 연구 즉, 사랑의 대상을 다원화하거나 사랑의 발달과 패턴을 고려한 연구 또는 미혼남녀 중 결혼의 대상 유무, 성별차이 등을 고려한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관련성이 검증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도 통제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

제까지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하였던 미혼남녀들의 사랑을 한국적 상황에서 유형화시켜 보고, 사랑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심리경향을 중심으로 사랑에 접근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기 외(1997). 심리학개론(제2판). 서울: 양서원.
- 김정택, 심혜숙(1990a).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1990b).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과 치료. 3(1), 44-72.
- 김정택, 심혜숙(1993). MBTI 성장프로그램 안내서(I).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심혜숙·임승환(1993).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중술(1998). 新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활란(1995). 중, 노년기 부부의 사랑과 자녀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혜숙, 임승환(역)(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Hirsh, S. & Kummerow, J.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윤미영(1994). 여대생의 성격유형과 성역할 특성에 따른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부영(1993).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 정효택(1994). 사랑의 유형과 그 심리학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복희, 정옥분, 유가호(1989). 인간발달: 발달심리적 접근. 서울: 교문사.
- 조은혜(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함인희(1998). 사랑을 읽는다. 서울: 출판시대.
- Berscheid, E., Snyder, M., & Omoto, A. M. (1989). The relationship closeness of inventory: Assessing the closen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92-807.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Y: Wiley
- Dion, K. L., & Dion, K. K. (1973). Correlates of romantic lo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51-56.
- Giddens, A. (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9*, 383-410.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Kelley, H. H. (1983). Love and commitment. In H. H. Kelle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 A. Peplau, & D. R. Peterson (Eds.),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Freeman.
- Lee, J. A. (1973). *The Colors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s of Loving*. Don Mills, Ontario: New Press(Popular Edition, 1976).
- Lee, J. A. (1974). The styles of loving. *Psychology Today, 8*(5), 43-51.
- Rubin, Z. (1970).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265-273.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119-135.
- Sternberg, R., & Barnes, M. (1988). *The Psychology of Love*. Yale University Press.
- Walster, E., & Walster, G. W. (1978). *A New Look at Love*. Reading, MA: Addison-Wesley.